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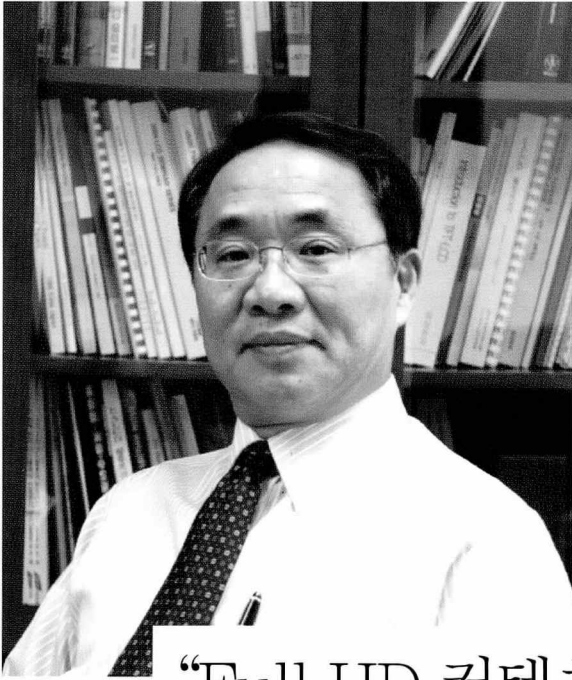
“결국 풀(Full) HD 콘텐츠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시장을 선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최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FPD International2006(Flat Panel Display International 2006)에서 ‘디스플레이 진화를 위한 기술 혁신(Technology Innovation for Display Evolution)’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 삼성 전자 LCD총괄 석준형 부사장의 미래전망이다.

글 | 박영주 기자(모바일타임스)

삼성전자 LCD총괄 부사장

석준형



‘제 4의 물결(4th Wave)’이 도래했다”면서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기존의 노트북 PC, 모니터, TV 등 전통적인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퍼블릭 인포메이션디스플레이(PID) 등 혁신적인 디스플레이가 우리 인간 생활을 변화 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LCD 시장에 대한 기술적 과제로 잉크젯 프린팅 기법의 도입을 통한 공정단순화, 새로운 광원(光源)개발 등의 재도전을 필요하다는 점을 석 부사장은 강조했다.

향후 삼성전자 LCD의 사업전략에 관한 설명에서는 기존의 노트북PC, 모니터, LCD TV향 제품 외에도 DID, 하이엔드 모니터, 프리미엄 노트북PC, 다양한 모바일향 제품의 드라이브를 통해 디스플레이 전 부문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조성중인 탕정 크리스탈밸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보여 주며, 선두업체로의 강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특히, 8라인 건설에 대한 진행현황과 관련, “계획한 일정대로 순조롭게 라인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며, “7라인을 통해 40인치급 시장의 표준화를 주도한 것처럼 8라인을 통해 향후 50인치급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Full HD 콘텐츠 디바이스가 시장 주도”

석 부사장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며, 향후 풀 HD 콘텐츠와 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풀 HD 미디어와 플레이어가 디스플레이 시장의 발전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석 부사장은 FPD 서밋에서 “과거 60년대 SF영화에서나 봐왔던 일들이 현실로 돼가고 있다”며, 그 중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그 어떤 부문보다 창의적이고 빠르게 전개돼 왔음을 강조했다.

석 부사장은 “그동안 LCD 업계는 노트북PC, 모니터, LCD TV 등으로 3가지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는 4번째 변화인

삼성전자가 건설중인 8라인은 2200×2500mm의 크기로 유리기관 한 장에서 46인치의 경우 8장, 52인치는 6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량은 유리기관 기준으로 월 5만매(52인치 기준 30만매/월)를 처리할 수 있다. 내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석준형 부사장은 끝으로 “앞으로 전개될 미래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디스플레이의 개념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크기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인간 생활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K**